

고3 수험생의 학업성취도 관련 변인 연구

문 혁 준(가톨릭대 부교수)

학업성취도란 성취해야 할 일련의 학습과제를 교수-학습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요인들의 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학습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소위 명문대 진학은 보다 나은 사회적 출세를 위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주요한 관심사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근거하여, 고3 수험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3 수험생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 학업동기, 가족건강성과 고3 수험생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탄력성, 부모애착, 학교생활만족도, 학업동기, 가족건강성이 고3 수험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은 경기지역의 1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371명으로 남학생 206명 여학생 165명이었다. 연구도구로 학업성취도는 수도권 평준화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지필평가 2회(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성적이며, 자아탄력성 검사는 Atsushi 등(2002)의 Resilience Scale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7$). 부모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Cronbach's $\alpha = .92$)를 사용하였으며, 학업동기는 Midgley(199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2$). 학교생활만족도는 김주연(2009)이 제작한 학교생활만족도 척도(Cronbach's $\alpha = .85$)를 사용하였으며, 가족건강성은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제작한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6$).

결과로는 첫째, 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여학생($M=68.13$, $SD=13.98$)이 남학생($M=59.48$, $SD=17.25$)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둘째, 변인들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는 학교생활만족도($r=-.35$, $p<.001$), 학업동기($r=.56$, $p<.001$)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는 경제수준($r=.16$, $p<.05$), 부학력($r=.19$, $p<.05$), 모학력($r=.21$, $p<.05$), 자아탄력성($r=.19$, $p<.05$), 학교생활만족도($r=.34$, $p<.001$), 학업동기($r=.50$, $p<.001$)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학업동기($\beta=.54$)가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건강성($\beta=.22$)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모형은 남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3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동기($\beta=.39$)가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만족도($\beta=.22$)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모형은 여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3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